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7월 9일 (제1209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홍우컬럼

## 선 조치, 후 보고

군대에는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말이 있다. 대체로 보고 후에 조치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조치하고 보고하라는 것이다. 적의 도발에 대해 '쏘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말고 대응하라는 것이다. 2010년 북한이 민간인 지역인 연평도를 공격했다. 그때 상황보고가 있었고, 후에 조치에 들어갔다. 한 템포 늦었다. 뱀이 집에 들어오면 의논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선 때려잡고 봐야 할 것 아닌가.

요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많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조치하고 구급대를 불러야 한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119가 오기만 기다리다가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나는 항상 성도들에게 말한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될 때 따지고 분석할 필요가 없다. 다 귀신이다. 무조건 쫓아내라."

"이게 귀신이야?", "쫓는다고 뭘까?" 할 필요가 없다. 적이 공격하면 무조건 맞대응해야 한다.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그의 아내 되신 권사님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라!" 명령했다. 바로 조치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장로님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내게 전화를 했다. 나도 "귀신아, 가라!" 하고 한 번 더 귀신을 쫓아냈다. 확인사살을 해준 셈이다.

'선 조치, 후 보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맞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귀신이 공격한 후에 쫓는 것보다 귀신이 아예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적의 공격을 받고선 조치, 후 보고가 아니라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국방을 튼튼히 하고, 허점이 없게 해야 하듯이.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한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어찌 도둑이 들겠는가.

가장 어리석은 자는 맞고 대응하는 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맞기 전에 대처하는 자다. 그러므로 만사 철저히 대비하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자!

##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작정한 자다

7월이다. 2023년이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코로나로 많은 제약이 따랐던 3년의 시기를 지나고 드디어 코로나 이전과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수련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7월 24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연합수련회를 위해 교육부서부터 기도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무리 타성에 젖은 말일지언정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전에 교단적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에 소홀할

배웠고 아주 체질화되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수련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영혼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확실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는 일이고, 신앙은 갖고 있지만 확신이 없거나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뜨거운 불길을 되찾을 영적 기름을 충만히 받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또는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에서 좌절하고 있는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

히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여 전체 수련회의 진행을 도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아말렉 족속에 잡혀갔던 처자 및 식솔들을 구하고 전리품들을 챙겨 돌아왔을 때 다윗이 함께하지 않았던 200인에게조차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는데(삼상30장), 하물며 함께한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보상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목사님께 배운 것은 먼저 하나님이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세다. 십일조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 없어야 할 것이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아예 망하기로 작정한 자다."

이 세상에 거저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매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그만큼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목사님의 39년 목회,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경험한 수많은 집회들(올림픽공원에서, 서울시청에서, 전쟁기념관에서, 그 외에도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다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다)이 대변해주고 있는 실상 아닌가.

목사님은 거의 매년 수련회에 앞서 기도원을 찾아 직접 집회 준비에 앞장서곤 하신다. 말뿐이 아니라 매사 직접 솔선수범하시는 목사님을 보며 우리는 지금까지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수련회를 갖는 근본 이유일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나아가 이 교회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천국의 인재들로 성장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도록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참석한 영혼들이 수련회 기간에 거하게 될 기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직접 기도원에 내려가 봉사해줄 인원도, 풍성한 먹거리도 필요하다. 또한 각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할 스태프도 필요하다. PPT 자막 및 촬영 분야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하나님의 일에 지극

네 소독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소독의 십분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 정신을 갖게 하시려는 거다. 네 삶의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라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집회가 선포되면 자신의 일상을 잠시 접고 현장에 달려와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자세이고, 또한 그것이 복임을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이다. 7월, 8월, 청소년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 집회가 계속된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모두가 기도하며 동참하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욥33:14~16)



# 의로운 자에겐 꿈으로 계시하신다

저는 '꿈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신 것을 하나하나 노트합니다. 그 노트를 뒤적이지나 묵회 39년 동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인치듯 교훈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느낍니다.

꿈의 노트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묵회 초기에 쓴 꿈입니다. 당시 교계의 거목이신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잠을 자는데 북풍한설이 몰려와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 쓴 꿈에서는 다른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잠을 자는데,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서 단잠을 잤습니다. 이는 후자(後者) 목사님을 좇아 묵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계시대로 저는 그 목사님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길은 꿈처럼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교계에서 제명이 되고 온갖 핍박과 환난이 난무했지만, 그 길이 옳고, 참된 길임을 지금도 믿습니다.

## 네가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꿈 노트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옆의 건물을 인수하려고 할 때 막으신 일, 개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우물에 물이 마른 것을 보게 하셔서 막으신 일, 올림픽공원에서 지금의 88체육관으로 옮기게 하신 일, 제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신 일, 베트남 집회를 막아주신 일, 서울 교회를 비롯해 지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일, 사농은 교회 성전 부지를 설계하다 연산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꿈으로 막으신 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가 재앙의 뚝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욥33:14~18).

여기서 '사람'이란 '의로운 사람'을 칭합니다.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절세미인인 사래를 보고 반하여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창20:3)고 경고하십니다. 이에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

까”(창20:4). 아브람이 분명히 사래는 자기 동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창20:6)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이는 ‘네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모르고 죄를 지을까봐,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갈까봐 꿈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자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그러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삼상28:15).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 재앙을 막아 주기도 하시지만, 장래의 일도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그는 구원자임이라.”고 말했습니다(마1). 이에 요셉은 꿈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해산할 때까지 동침치 않았습니다.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얼룩 양으로 인해 재산이 얻게 됨을 말씀하셨고, 요셉에게 벧단에서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과 해와 달이 자기에서 절하는 꿈을 주심으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며, 기드온에게도 꿈으로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꿈을 통해 ‘명성(名聲)’이라는 두 글자를 보여주셨고, 제가 지구를 끌어안는 꿈을 통해 ‘세계교구’를 이루게 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꿈도

익을 시간이 필요하고, 임신했다 고 바로 출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벼가 익으려

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의로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일에서 손을 떼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이를 무시해서 세세토록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무시하십니다. 이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라”(시73:2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물 좋고 학벌 좋고 가문이 좋아도 꿈이 안 좋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고, 자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시면 동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 매일 일기를 써라 꿈의 노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꾸지도 않은 꿈 이야기로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하며 미혹하고 자기 치려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들의 편익을 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꿈, 나를 사랑하는 자의 꿈 이야기를 들어야지, 괜히 남의 꿈 이야기에 현혹되어 휘둘리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몽도 사사로이 하면 안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해몽해야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허황되고 거짓된 꿈 해석자들(신13:1~5)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렘23:25~32)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계시받은 것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발설함으로 더욱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고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지혜입니다(잠25:2).

‘왜 나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까?’ 하는 분들 있습니까? 주과수가 맞아야 방송도 나오는 법, 먼저 의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시시때때로 계시하사 죄악을 방지케 하시고, 미래를 예시하시며,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2:17).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기업의 미래이익 추산법1

워렌 버핏은 주가가 얼마일 때 매입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 그 주식이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주식의 매입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주가는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는 매년의 이익을 돈의 시간가치로 할인한 미래 기대수익의 총합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버핏이 확실성을 보이는 기업들만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 때문입니다. 안정성은 기업가치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업실적이 불안정할수록 그 기업의 미래도 불안정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한 기업은 리스크도 높으며,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에 비해 가치가 떨어집니다.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실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에 대해 비논리적인 가정을 하게 되지요. 버핏이 일반 애널리스트들과 다른 점은 보편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궁극적으로 매출을 통해 획득한 이익과 매년 수익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터넷 기업도 철도, 전기, 영화제작사, 소매업체 등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가치 역시 기대이익에 대한 현

재가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미래에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버핏은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는 쉽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를 위해 선택한 기업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이다. ‘선택한’이란 말에 주목하자. 모든 기업에 관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역량 내에 있는 기업들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의 목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이는 것이다. 단, 그 기업은 지금부터 5년,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분은 이 기준에 맞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기업을 찾을 경우 다량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년간이라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은 “계속 전진하라! 멈추면 죽는다.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며, 현상 유지한다는 기업은 다 망했다. 신앙도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병든다.”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 꿈을 사사로이 풀지 맙시다

어느 날 저는 3일 연속 같은 꿈을 꾸고 고민에 빠져있다가 ‘모르는 것은 물어보라’는 말씀이 떠올라 총회장 목사님께 여쭙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꿈에 저의 죄성을 보여주시는 건지요? 저도 모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깨달으란 것이니 기뻐해야 한다. 관심이 없다면 상관도 안 하신다.” 목사님의 문자를 읽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던 시기에 꿈 꿈인지라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짓눌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감사하게도 ‘기뻐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위축된 저를 일으켜 기도 자리에 앉히셨고, ‘오직 성령 충만이 너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비로소 그 꿈은 죄에 대한 질책이 아닌, 나의 본성으로 구덩이에 빠질세라 기도하고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친절한 메시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꿈에 나와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말했고, 우리는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더군요. 당장 말해주고픈 굴뚝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저는 목

사님께 여쭙보았습니다. “꿈에 친구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얘기하지 마라. 자기에겐 상관없는 일을 간섭하는 자는 오해를 받는다.” 상대방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했다가 개꿈이라고 오해받는다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으니 당장 알려주라는 뜻이구나!’라고 사사로이 꿈을 풀었다라면 과연 지금까지 우정이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저는 목사님의 해몽 덕분에 그날 이후로 친구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나침반’을 통해 불의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어리석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장래에 일어날 좋은 일들을 꿈을 통해 계시하시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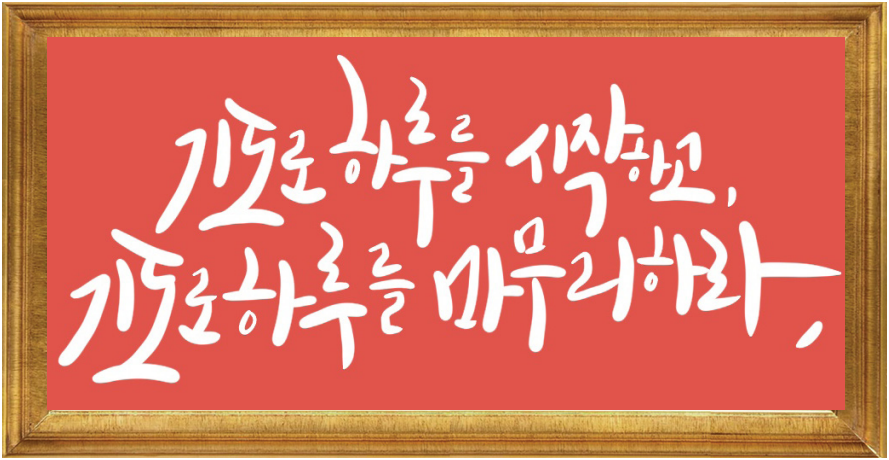
김진실 사모  
pupu519@naver.com

:: 책을 펴다 ::

## 모르면 물어보라

“자네, 그것에 대해 아나?” 하고 물었을 때, “아니요, 모릅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어느 사람이 발전적이라고 보는가? 호기심은 관심이며 성공의 제1요소다. 말을 갓 배운 아이들은 질문이 참 많다. 세상사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고, 모르는 것투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엄마, 이게 뭐야?” 한다. 질문을 하면 다 풀린다. 질문은 미로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왜?’라는 질문을 다섯 번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까지 말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이 바

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금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나라”(막9:29). 제자들은 질문을 통해 답을 알아냈고, 답대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옷자락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답이 나온다. 모르는 채 그대로 있으면 성장이 없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창피한 일이다. 모르는 것은 꼭 물어보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8).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 뿌리 신앙

얼마 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었다. 그동안 받고 계셨던 항암치료를 잘 극복하고 계셨기에 모두가 희망을 가졌었다. 그리고 이제 막 회복단계로 들어섰기에, 권사님의 갑작스런 소천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자녀들이 받은 충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장례식을 인도하는 내내 유가족들의 비통한 오열로 인해 예배를 인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권사님의 삶이 주변인들에게 안타까움이고, 진한 그리움으로 남게 된 것이다. 권사님의 따뜻한 언어와 잔잔한 배려심에 감동 받은 일도 많았기에 나 또한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살아생전에 늘 유언처럼 자녀와 손주들의 구원을 소망하셨고 기도하셨다. 그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유가족들에게 더하여진 것 같았다. 장례예배를 통해 강력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는 바로 ‘부활신앙’이었다. 권사님을 다시 만날 유일한 길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전도했고, 또 결심도 했다. 사도신경에서도 늘 고백하는 바이지만, 육체는 썩어도 영혼은 썩지 않기에, 몸과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체로 덧입혀 주심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썩지 않도록 영혼이 먼저 잘되는 일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강단에 놓을 큰 고무나무 두 그루를 선물해 주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한쪽 나뭇가지들이 시원찮아 새 나무로 교체해 주셨다. 화원에서 오신 분 말씀이 ‘뿌리만 썩지 않으면 나무는 죽지 않는다’며, 시원찮은 나무를 양지바른 곳에 내놓고 대담하게 톱으로 반을 썩둑 썰어놓고 가셨다. 뿌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 죽은 듯한 나무가 다시 자라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뿌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 환경과 상황이 모두 흔들리고 어려워도 뿌리 하나만 건재하면 다시 살아난다. 겨울철에 다 죽은 나무처럼 보여도 뿌리만 살아서 유지되니 때가 되어 다시 약동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간 다 썩는다. 썩지 않을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 부활의 신앙을 소망한다.

송직화 목사

:: 간증 ::

:: 빛이 되리라 ::

# 아내의 암을 치료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업장에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회생시켜주셨고, 심장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입이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평탄하게 사는가 하던 어느 날, 아내인 남예일 권사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남 권사가 아랫배에 혹이 만져진다고 했습니다. 남 권사는 별 일이 아닌 듯 웃

으며 ‘이게 만일 암이면 보험금이 나올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며칠 사이에 혹이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부부는 대형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진 차 검사를 받은 건데, 남 권사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나왔고, 남 권사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시며, 다 나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목사님의 기도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해주셔서 중환자실에서 나온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대로 뇌졸중으로 입이 돌아간 상태에서 기도원에서 간증을 했더니 입이 돌아온 경험도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남 권사는 두 달 만에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가 놀라는 것입니다. 암 덩

어리가 없어졌다고, 1%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걸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인데 약 한 번 먹지 않고, 항암요법 한 번 하지 않고 완치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보험금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 부부는 사는 날 동안 더욱 주님께 충성할 것이며,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입니다. 죽을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소서.” 이것이 우리 부부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차에도 동행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성가대장이라는 큰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염상섭 장로

것입니다.

‘한계효용감소의 법칙’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빵을 하나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감소되고, 나중에는 빵이 보기도 싫어져 내팽개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질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죽은 뒤에 영생복락의 천국에 가지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Good News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백작의 작위를 받을 정도로 부족할 것이 없는 환경이었으나 그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기에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집에서 일하는 농노들이 찬송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쳐나는 그들의 열

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일만 하는 농노들이 어떻게 저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 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기쁨을 누리며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 헤매지만 세상의 소망이나 기쁨은 손에 잡는 순간 끝이 나게 됩니다. 그토록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막상 취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허탈감과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짜 소망이고, 가짜 기쁨인

:: 주님을 향하여 ::

## 바람 속의 음성

아브람은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음성의 주인은 아브람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창12:1~2). 아브람은 지체 없이 떠났고 갈 바를 몰랐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아브람은 음성의 주인을 마음 깊이 신뢰했다. 아무런 표적도 표징도 없었지만, 그는 바람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음성의 주인이 자신과 함께하리라는 굳센 믿음이 있었다.

내게도 그런 특별한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고난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았던 어느 날, 그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단 한번도 그러한 신비를 꿈꿔본 적은 없었다. 아마도 극도의 고난 앞에 절박한 내 심령이 절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연 것 같다. 정말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내디딜 곳이 없다

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듯하다.

세상 홀로된 두려움으로 화장실 한쪽에 숨어 울고 있던 딸이 안타까우셨던 아버지는 먼저 찾아와주셨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것 같은 음성이셨다. 그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뒤이어 찾아온 마음의 평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쉬웠다. 그렇게도 버겁고 무섭고 아프기만 하던 일들이 건달만해졌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란 믿음도 더해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이렇듯 어떤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아브람이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음성에 대한 강한 믿음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신학교에 입학해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떠나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는 일은 정말 생각 이상의 진통을 가져왔다.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하고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 무척 혼란스럽다는 말만으론 부족한 시간들이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날에 나를 부르시던 아버지의 음성이 선명히 기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람이 음성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나 또한 음성만을 쫓아 오늘도 나아간다. 갈 바는 모르지만, 또 나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저 나아갈 뿐이다. 지금의 내게 다른 길은 없다. 거목도 그 처음은 작은 한 그루의 묘목이었듯이, 비록 오늘의 모습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아도 좋다. 나는 그저 오늘을 이기고 조금씩 자랄 뿐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목사님처럼 나의 가지도 담장을 넘을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박영임 생도

## 어~ 기도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작은 간증을 하나 해보려고 한다. 주정차 과태료 관련한 일이다. 몇 달 전에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다. 그때 이후로 겁나는 마음에 운전 시작 전에 더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딱지 끊지 않게 해주시고, 차에 기스 나지 않게 해주시고, 천사야~ 이 차의 앞뒤 좌우를 꼭 지켜라~’ 등등의 기도를 꼭 하고 출발한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청장년부예배가 있었던 문래교육관 옆에서 일어났다. 수년간 딱지를 떼지 않는 곳이 있어서 지체들 대부분이 자유롭게 주차하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그곳에 주차한 모든 차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서가 부착되었다. 옆 건물에서 건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을 통해 민원이 들어갔나 보다.

딱지를 보고 생각했다. ‘어? 이상하다? 내가 오늘 출발할 때 깜박하고 기도를 빼먹었나?’ 그런데 아니었다. 분명히 출발할 때 딱지 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앞으로 더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건가?’ 생각하며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증을 자세히 보니, 차량 번호가 잘못 찍혀있는 게 아닌가? 내 차 번호는 27버XXXX인데, 27버XXXX로 되어 있었다. 사진 인식을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아무 연락이 없고 위택스에 조회해도 과태료 내역이 뜨지 않는다.

남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백이면 백 모두 ‘진짜 과태료 차량 주인을 찾아 돌고 돌다, 언젠간 다시 날아올 거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 내가 한 기도를 믿는다. 진심으로 기도했고, 특별히 ‘이번엔 안 돼!’라고 하실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작은 일이지만, 늘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듣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2023  
청소년 연합 수련회

중고등부  
7월 24일(월)~26일(수)

대학청년부  
7월 27일(목)~29일(토)

문의: 02. 533. 9191